

박물관 사람들



2009년 여름 26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전기 구석기 문화를 유럽·아프리카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문화로, 동아시아는 짝개 문화라고 주장하던 모비우스학설은 전곡리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뒤집히게 되었다.

◀ 사진 | 주먹씨르개, 김포 장기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박물관사람들 Contents

- 기획 | 선사시대의 돌 04 돌로 돌을 깨다
- 08 강화 부근리 고인돌
- 09 선사시대의 고인돌 문화
- 12 흑요석과 한반도의 구석기시대
- 답사기 15 폐사지서 들려오는 역사의 숨결
- 전시실 산책 I 18 그녀들의 이야기
- 전시실 산책 II 21 영원을 그리며
- 회원마당 24 엄친딸을 기다리며
- 자원봉사기 26 불가근 불가원
- 학술상 수상논문 28 朝鮮 後期 分帖式 大縮尺 全國地圖의 製作과 『朝鮮圖』
- 박물관 소식 33 국립중앙박물관회 기부문화운동
- 박물관 둘러보기 34 전통염료식물원
-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돌로 돌을 깨다

— 동굴 밖에서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온다. 사냥을 나간 젊은 남자들이 노루를 잡아 돌아왔다. 안에 있던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어제 만든 찌개와 밀개를 가지고 그 곁으로 간다. 해체를 하려는 것이다. 한쪽 옆에서 몇몇 여인들이 사슴 가죽 위에 굽개를 가지고 부드럽게 무두질

을 한다. 채집을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동굴 가족들은 빙 둘러 앉는다. 나뭇잎 접시 위에 오늘의 수확인 고기와 열매, 물고기가 풍성하다. 구석기시대의 동굴은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친근한 보금자리였다. 그러나 식량이 떨어지면 새로운 곳을 찾아 늘 이동 해야만 했다.



주먹씨르개, 연천 남계리, 국립중앙박물관

인간의 손은 두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워졌다. 물건을 옮기고 식물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하였다. 인간의 손에 의해 가장 먼저 쥐어져 새롭게 탄생된 대상은 돌이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구석기의 오랜 기간 동안 돌을 깨뜨려 생활의 도구로 썼다. 불과 돌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두뇌와 손도 여물어 갔으리라.

선사시대의 도구였던 석기를 크게 돌로 나누면 구석기 시대에 주로 쓰던 뿔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개발된 간석기가 있다. 뿔석기는 자연의 돌을 떼려 그 일부를 떼어내 만든 석기이다. 석기를 만들 때 재료가 되는 돌을 돌감[blank]이라고 한다. 이런 돌감은 몸돌[core:석핵]과 박편[flake]으로 나뉜다. 몸돌은 박편을 떼어 냈거나 떼어 내기 위해 가공된 것이다. 박편은 돌감에서 돌을 떼려 떨어져 나오는 일정한 크기의 돌조각을 말한다. 돌날은 돌을 때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구석기 말기에 나타난 가

늘고 긴 박편이다. 이 '돌날기법'이 발명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돌감이 석기 만들기에 이용된다. 입자가 치밀하고 결정구조가 없는 유리질 석재인 흑요석, 혼펠스가 그것이다. 약 260만년 전 탄자니아 올두바이에서 출토된 뿔석기들은 석기 중 가장 오래된 도구이다. 뿔석기의 종류로는 최초라 할 수 있는 찌개를 비롯하여 가로날도끼, 주먹도끼, 밀개, 새기개, 주먹찌르개, 스페찌르개, 자르개 등이 있다.

구석기시대 전기의 석기는 대부분 큰 돌을 통째로 가공한 몸돌석기들이며 크고 거칠고 무겁다. 대표적으로 찌개와 주먹도끼, 여러면석기, 대형 찌르개, 굽개 등이다. 찌개는 어른의 주먹보다 좀 더 큰 정도가 일반적이다. 목재를 가공하거나, 동물 도살시 부위별로 크게 잘라내고 뼈를 부수는 등 거친 작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찌개들은 거의 대부분 차돌 자갈돌로 만들어졌다. 단양 금굴유적, 연천 전곡리유적, 파주 금파리유적 등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대형굽개, 연천 학곡리, 토지박물관

찌개, 파주 금파리, 국립중앙박물관



주먹도끼, 파주 주월리·가월리, 서울대학교 박물관

주먹도끼, 프랑스 생 아술(St.Acheul)출토

— 이후에는 몸돌에서 떼 박편으로 만든 굽개와 홈날, 소형찌르개 등이 새롭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날을 정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발달한다. 돌감의 가장자리를 연속적으로 잔손질하여 날을 만드는데, 얇아 내거나 얇게 잘라내는 용도에 적합하다. 날의 각도와 형태, 사용흔 분석결과 주로 목재나 가죽의 가공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적지는 공주 석장리·단양 수양개·함북 웅기 굴포리 유적 등이 있다.

떼석기는 점차 크기가 작아지며, 다기능 연모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종류로 분화된다. 후기의 떼석기는 불규칙하고 임의적 형태에서 상당히 정형화되어 이전과 확연히 구분된다. 돌날 제작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동북아시아에서만 나타나는 쯤돌날 몸돌석기가 만들어진다. 나무나 뿔에 길게 홈을 파고 이것을 끼워 칼이나 창과 같은 끼움식도구를 만드는데 이용되었다. 이 시기는 큰 강과 그 지류 유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 많은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다.

— 정착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신석기 시대에는 더 많은 시간을 도구와 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된다. 수렵과 채집에서 더 나아가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였다. 정교한 간석기[마제석기]를 사용하고 음식물을 담아 둘 토기를 만들어 내는 혁신이 이루어진다.

— 우리 교과서에서 구석기 시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74년부터이다. 일제 강점기까지는 한반도에 구석기가 없었다고 믿었으며, 광복 후 1962년과 1964년 웅기 굴포리유적과 공주 석장리유적이 발굴되면서 구석기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1970년대 말 연천 전곡리유적에서의 주먹도끼 발굴로 한국 구석기문화를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그 후로 구석기 연구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구석기유적이 발굴되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



구석기 시대의 밀개, 진주 집현, 국립진주박물관



신석기 시대의 밀개, 통영 상노대도, 국립김해박물관

전곡리유적지는 한탄강 일대의 구석기유적 중 하나이다. 1978년 그곳에 놀러왔던 미군 그렉보웬이 우연히 4점의 석기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입대 전 고고학을 전공하였던 그는 모가 난 자갈들이 강물의 작품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 돌은 서울대 김원룡교수에게 전달되었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임이 밝혀졌다. 그 후로 지속적인 발굴이 이어졌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모비우스교수가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가 없고, 찌개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동아시아를 은연 중 문화적 열등지역인 것처럼 폄하하였는데, 전곡리에서 많은 양의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모비우스학설은 반증되었다. 주먹도끼는 하나의 석기로 찢고, 자르고, 찌고, 찌르는 등 많은 기능을 한다. 일명 백가이버칼이라 불린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규격화된 도구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100만년 이상 사용되었다.

돌로 돌을 깬다. 틈새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곳을 때리면 틈이 생기고 결이 드러난다. 더 이상 돌을 깰 필요가 없는 우리들에게 석기는 어떤 의미일까? 자연에 동화하면서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삶을 개척했을 구석기인들, 첫 인류인 그들이 힘차게 살아내지 않았다면 현재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결을 발견하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던 석기들. 그 투박함에 울컥 애정이 느껴진다. 🐾



슴베찌르개, 단양 수양개, 국립청주박물관



선사시대의 고인돌 문화

_ 인류가 출현하여 처음 사용했던 도구는 돌연모 [石器]지만 오랜 석기시대를 거쳐 역사시대에 이르러서도 돌은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선사시대에 돌 문화가 본격적으로 꽃 핀 것은 고인돌[支石墓]과 선돌[立石]이라는 巨石文化의 발생 단계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_ 거석문화란 자연석을 그대로, 또는 일부만을 가공한 바윗돌로 埋葬이나 제사 등 의식행위와 관련된 문화 양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유형으로는 고인돌과 선돌 외에도 列石과 돌림돌[環狀列石]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고인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인돌은 지역부터 구조적 특성과 분포의 밀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넓은 지역에서 대서양, 지중해, 인도양, 태평양 등 주로 해안을 따라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태평양 연안에 면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인접한 중국의 동북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이 동북아시아 고인돌 문화권을 이룬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고인돌은 그 시

대적 배경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서유럽의 초기 고인돌[dolmen]은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중반에 해당되는 기원전 5000년대에 시작되어 약 3000여 년 동안의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편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서북 지방에서 기원전 10세기 경에 나타나는데 기원 전후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년 동안 계속된다. 이 시기는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와 일치하며 따라서 고인돌이 청동기시대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묘제임을 알 수 있다.

_ 동북아시아 고인돌 문화권의 중심을 이루는 한반도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밀집된 분포를 보이는 곳으로는 북부 지방의 평안남도 일부와 황해도 일원, 남부 지방의 전라남·북도 등 주로 반도의 서·남해안 지역 일대이다. 이는 서·남해안 지방이 동해안에 비해 지세가 완만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 여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도시의 형성에서도 그러한 정황을 엿볼 수가 있다. 이



북방식 고인돌, 강화 부근리



남방식 고인돌, 전북 고창군 상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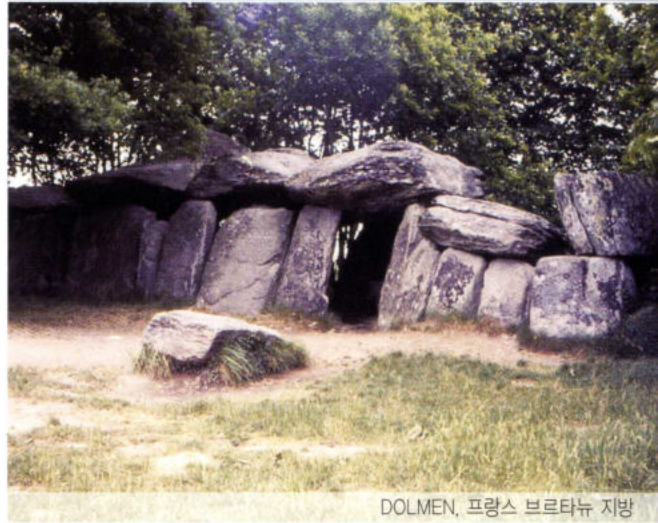
들 고인돌은 한 곳에 한·두 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 기가 한 곳에 무리를 이루는 곳이 대부분으로, 10기 안팎이 많고 수십 기가 모여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특히 전북 고창 上甲里 일대에서는 산자락을 따라 2km 미만의 거리에 400~500기의 고인돌이 확인되고 있다. 고인돌이 무리를 이루는 지형적 상황을 보면 대개 크고 작은 하천 유역이나 산자락의 평지, 또는 야트막한 구릉지대 등 비교적 낮은 지대이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그들의 생활권과 가까운 근접성의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거석을 채석장으로부터 운반하기 쉬운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수 톤에서 또는 수십 톤, 드물게는 백 톤이 넘는 거석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평탄한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면서 한 겨울철이면 얼어 붙은 강을 따라 옮기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고인돌의 숫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된 것은 없지만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전라남도에서만 지금까지 22,000여 기에 이르는 고인돌이 보고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밀집된 지역이지만 이곳을 기점으로 대강의 고인돌 분포 정도를 어렵해 볼 수가 있다.

지역에 따라 분포의 밀집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일지라도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분포된 고인돌은 그 구조적 특징에 따라 크게 北方式과 南方式으로 구분한다. 각 형식의 특징을 보면, 북방식은 4매의 넓직한 판석을 땅 위에 세운 뒤 그 위에 넓은 덮개돌을 얹어 네모난 돌방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다. 한편 남방식 고인돌은 지하에 구덩을 판 뒤 여기에 판석을 세우거나 할석을 쌓는 등 무덤 시설을 만들어 시신을 묻은 뒤 그 위에 바윗덩이와 같은 두터운 덮개돌을 얹는 것이다. 이들 고인돌에 대한 형식분류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함께 이름 그대로 분포의 지역성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다. 즉, 북방식은 대체로 반도의 북부와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분포의 주류를 이루는데 비해 남방식은 남부 지방과 일본 규슈지방에 분포하는데 그 구분의 경계는 대체로 북한강이다.

한반도의 고인돌로부터 발굴을 통해서 수습되는 유물은 석기와 토기류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여수반도 등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요녕식 동검[遼寧式銅劍]과 투검창[銅鉞] 같은 특수한 형식의 청동 유물들이 출토된 바 있다.

석기류로는 간돌검[磨製石劍]과 돌살촉[石鏃]이 많으며 반달칼[半月形石刀], 돌도끼[石斧], 돌끌[石鑿] 등利器類와 대롱옥[管玉]과 같은 장신구류도 나온다. 토기는 대부분 민무늬[無文] 계열의 것들로서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전 기간에 걸쳐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들 민무늬토기 가운데에는 아가리를 따라 구멍이 뚫린 구멍토기[孔列土器]와 골아가리토기[口脣刻目土器], 이 밖에 붉은간토기[紅陶], 가지무늬토기[彩文土器]와 같은 특수한 모양의 토기들도 드물게나마 출토된다. 특히 북한에서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이들을 팽이형[角形]토기로 부르며 그 주된 분포는 청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이다.

이들 고인들은 같은 지역에 분포하거나 한 무리 속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각개의 고인들마다 그 규모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被葬者의 신분적 차이와도 관계가 있다. 그것은 거석을 운반하고 쌓는데 필요한 인력 동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이들 고인들이 소수의 지배계층만을 위한 무덤이라는 논리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고인들 조성과 같은 대규모의 작업에 필요한 인력 동원은 반드시 지배계층이 아니더라도 협동 체계가 이루어진 우리 고대사회의 공동집단 체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본다. 따라서 한반도의 고인들 사회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조직적 협동과 집단의 질서체계는 고인들 사회의 말기에 이루어진 반도 내 국가 형성의 기틀 마련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DOLMEN,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선돌, 충남 공주시 상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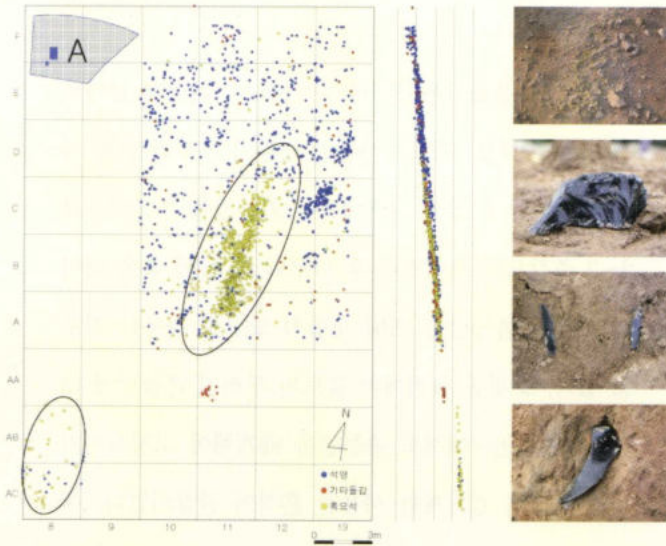
흑요석과 한반도의 구석기시대

흑요석은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점성질 산성용암이 매우 빠르게 식으면서 형성된 유리질 화산암이다. 비결정질의 자연산 유리인 이 암석은 구성이 치밀하고 단단하다. 가공이 용이하며 깨져나간 날이 매우 날카로워 구석기시대부터 특정한 기능을 지닌 생활도구나 무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다. 흑요석의 분포는 화산분출 지역에 한정되며, 화학구성이 각 산출지점의 지질학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성분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추적한다. 동일한 원산지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화산 분출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성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흑요석 생성시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다양한 시료를 분석하여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연구는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의 형태 및 제작 기술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당시 고인류의 흑요석 획득방법 및 그 활용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면 1] 흑요석제 석기 출토 유적(구석기시대)

한반도의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흑요석제 석기가 출토된 곳은 모두 21개 지점에 이른다[도면 1]. 유적의 밀집도와 유적별 출토 유물 수량을 비교해 볼 때 흑요석의 사용은 주로 한반도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



[도면 2] 흑요석제 석기 분포도와 출토모습

하게 이루어졌다. 절대연대측정과 상대연대설정 자료에 따르면 각 유적에서 흑요석제 석기를 포함한 문화층은 지금으로부터 24,000~10,000년 전경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4만여 년 전부터 신석기시대 이전까지 지속된 후기구석기시대의 중·후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한반도에서는 쯤돌날석기문화가 확산된 시기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편년된 철원 장흥리[Ⅰ문화층], 포천 화대리[Ⅰ문화층], 남양주 호평동[Ⅱ문화층] 유적을 통해 한반도에서 흑요석을 석기제작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24,000~21,000년 전부터라고 추정된다. 또한 출토된 흑요석제 석기군이 쯤돌날석기문화상을 보여주어 흑요석의 사용과 쯤돌날석기제작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호평동, 하화계리[사둔지와 작은 솔밭], 상무릉리, 장흥리 유적은 흑요석제 석기가 다량 출토된 곳으로, 일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은 석기가 출토된 호평동 유적의 경우, 전체 석기의 85%가 9×6m 구역에 밀집한다. 다양한 종류의 석기 및 서로 되 붙는 석기들에서 당시 흑요석을 활용한 석기제작이 이 지점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도면 2, 3]. 이처럼 돌감에 따라 작업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한 양상은 흑요석뿐 아니라 흑요석과 함께 사용된 유문암·응회암·혼펠스제 석기제작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는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여러 종류의 돌감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기 구석기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특정 돌감에 대한 적응 방식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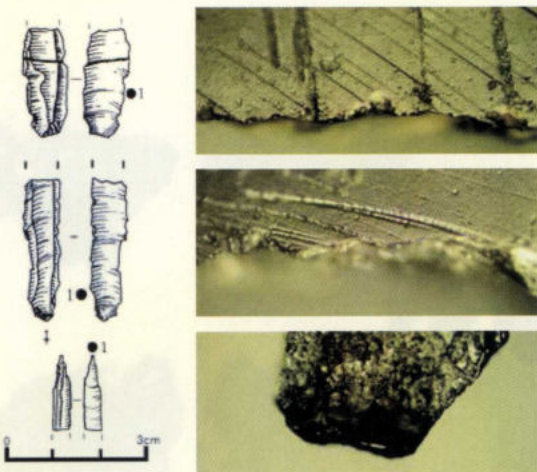
흑요석은 쯤돌날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돌감으로, 대부분의 석기는 쯤돌날제작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쯤돌날몸돌, 쯤돌날, 격지 종류로 구성된다. 쯤돌날제작에는 돌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밀한 기술이 쓰였다. 그 흔적은 몸돌에서뿐 아니라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크기의 잔격지 종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질 좋은 돌감을 최대 한도로 활용한 양상은 쯤돌날몸돌로 재활용된 격지나 작은 크기의 돌조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쯤돌날몸돌과 쯤돌날에서 관찰되는 형태·제작기법상의 특징에서 쯤돌날제작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눌러떼기기술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쯤돌날몸돌에 대한 사용흔 연구에서 관찰된 몸돌 고정용 나무도구가 사용된 흔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도면 3] 서로 되 붙는 석기



쫘돌날은 잔손질을 가하지 않은 채 날카로운 날을 그대로 도구로 사용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시베리아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쫘돌날을 의도적으로 2~3 조각으로 부러뜨린 후 나무나 뿔 등에 홈을 내어 여러 개의 쫘돌날을 끼워 조합식 도구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호평동 유적에서 출토된 부러진 쫘돌날에 대한 사용흔 연구에서도 쫘돌날을 매개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식물성 접착제를 사용한 흔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도구제작은 당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드물긴 하지만 흑요석제 격지나 쫘돌날에 잔손질을 해서 만든 도구로는 굽개, 홈날, 밀개, 새기개[조각도], 뚜르개 등이 있으며 유적에 따라서는 스페찌르개나 화살촉이 출토된다. 가장 특징적인 석기는 크기가 작은 부류에 속하는 쫘돌날의 위끝 부분에 잔손질을 가하여 뾰족한 형태의 도구날을 만든 뚜르개이다. 사용흔 연구에 의하면 도구 끝 부분의 마모된 흔적이나 날에 수직한 줄자국으로 미루어보아 뚫고 돌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용흔 관찰(쫘돌날, 뚜르개 : 100배)

흑요석 돌감의 공급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반도 중북부지역에서는 흑요석의 사용과 쫘돌날석기의 출현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이 문화적 접촉이나 쫘돌날 제작기술을 보유한 새로운 집단의 이동, 기존의 돌날기술을 보유한 집단의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 적응대책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앞으로 주변 유적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폐사지에서 들려오는 역사의 숨결

_ 박물관회에서 답사 소식을 전해들을 때면 그 답사의 정경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陳田寺址와 禪林院址라고 적힌 문자메세지를 본 순간, 자석에 이끌리 듯 마음은 벌써 그곳으로 향했다. 두 곳은 내게 가장 순수한 느낌을 지닌 장소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 산중의 사찰터로 수행을 위해 속세를 벗어난 출가자의 정신이 처음 그대로 느껴지는 곳이다.

_ 석교리를 거쳐 계곡 옆 좁은 길로 올라가 진전사지 앞 공터에 도착했다. 도의 선사가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이들을 뒤로 하고 설악산 깊숙이 터를 잡은 곳이다. 외로운 선각자가 정한 절터라 인적 닿기 어려운 막막한 외지일 것만 같은데 진전사지 가까이 마을이 있어 왠지 다행스런 느낌이 들었다. 앞 쪽에 놓인 계단을 올라가자 탑이 눈에 들어왔다. 잔디가 정갈하게 깔린 빈 터에 홀로 서 있는 탑을 보니 廢寺址 특유의 정서가 느껴졌다. 부

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계단길 양편에 걸어 놓은 등이 수를 놓고 있어 그 장소가 더욱 성스럽다.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에 한 그루 라일락의 자연스런 줄기가 탑의 조형감을 더 돋워준다.

_ 진전사지 탑은 통일신라시대 3층 탑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탑의 기단과 1층 탑신에 부조가 되어 있는 점이었다. 하층 기단에는 비천상, 상층 기단에는 팔부중상, 그리고 1층 탑신에는 사방불이 부조되어 있는데, 그 솜씨가 매우 빼어나다. 해설자는 “숙련된 조각 솜씨로 만든 뛰어난 부조는 그 도드라짐이 알맞아야 하는데 진전사지 석탑은 바로 그러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조는 사면이 다 조각되지 않으면서도 입체감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묘미인데, 너무 도드라지게 하면 신비한 맛을 잃게 된다고 한다. 그 곳을 나와 부도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진전사지 부도는 始原的 의미를 갖고



강원도 영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부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조성하려는 부도의 형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리한 듯한 느낌이 나타나 있다. 탑과 같은 기단부에 사리공을 둔 8각 몸돌을 올려놓은 구조이다. 스님의 사리를 소중히 봉안하려는 의미를 담아 조형된 것으로 보인다. 몸돌은 양면 받침 위에 있고, 몸돌 위에는 풍우로부터 보호하고자 옥개석을 올려놓았으며 그 위로 보주가 얹혀 있다.

선림원지 가는 길은 산마루를 넘을 때까지 길게 이어져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국이다. 주변 산세가 높고 깊어져 선림원지는 험한 산중에 들어와 있는 지점이다. 작년 백두대간을 종주할 때 맞은편 능선에서 선림원지 쪽을 가며 지났었다. 처음 이 곳을 찾았을 때는 높은 지대에 그윽한 절터가 있다는 것이 특별하게 다가왔었다. 마치 상상 속의 仙界가 실재하는 듯 했다. 산길은 높게 오를수록 험겁고 오지의 척박한 조건을 체험하게 되지만 이곳에 오면 오히려 안온함이 느껴진다. 지나는 길은 구비구비 새롭게 나타나는 산봉우리와 맑게 흐르는 계곡이 정취를 띠며 어우러져 있다.

점차 좁아진 길을 걷다 모퉁이를 돌아가니 선림원지 표지가 나타났다. 경사길을 올라 우측으로 계단을 오르니 바로 앞에 탑이 있다. 뒤로 전체의 절터가 보이는데, 지반이 더 정돈되어 보이는 것 외에 폐사지의 빈 느낌은 전

에 본 그대로였다. 변하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전경을 담으려고 멀리 떨어져 사진을 찍고 다시 석탑 앞에서 천천히 바라보았다. 탑의 전체적인 생김은 2층 기단, 그리고 3층의 몸체를 한 진전사지 탑처럼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갖추고 있다. 상층 기단부에 부조가 새겨진 것도 진전사지 탑과 비슷하여 그 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곳에 터를 닦은 염거화상이 도의선사의 제자인 인연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연관지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전사지 탑에 비해 격이 낮은 모습이다. 부조는 상층 기단부에만 있고 진전사지 탑에 있는 하층부와 1층 탑신의 부조는 생략되어 있다. 탑신의 체감비도 그에 못 미치고 있었다. 창작성보다 단지 하나의 탑을 모방해 세우려는 의식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탑을 보고 뒤편에 있는 부도 앞으로 이동했다. 부도의 몸돌과 상륜부는 없지만 조각 솜씨가 뛰어나다. 기단 중앙부에 새겨진 용트림이 생생히 느껴진다. 부도가 조성되기 시작한 아직 초기임에도 이 시기 석조물로는 대표적이라 할 만큼 뛰어난 유물들이다. 다시 자리를 옮겨 석등을 둘러보았다. 이 곳 석등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보림사 석등 등과 함께 뛰어난 것 중의 하나로 꼽힌다. 석등 가까이 자리 잡은 부도비로 걸음을 옮겨 바라보았다. 역시 잘 다듬어져 있었다. 뒤돌아보니 앞에 보이는 산이 절터를 둘러치고 있어 더욱 그윽하게 느껴진다. 잠시 일행이 내려가기를 기다려 빈 공간의 느낌을 담아 사진을 찍었다. 선림원지를 뒤로 하고 나오는 길 옆으로 계곡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다. 나 자신도 것처럼 맑아진 듯, 기분이 상쾌해졌다. 다리 위에서 다시 한번 그 정경을 올려다보고 귀경길에 올랐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오늘 다녀온 두 폐사지의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

선림원지

김석환

아스라이 높은 산중
백백한 산봉오리에 둘러친
안온한 터에
처음 닿았던
구도자의 발걸음

산이 깊을수록
속세의 왕래가 끊기고
생활은 더 모질어지건만
구도를 향한 마음엔
그윽한 기쁨만이
찾아들어나보다.

건물은
세월에 스러지고
불탑 하나
스님의 묘탑하나 달랑
빈 터에 남아 있건만

천년도 더 전에
수행자의 마음 밝히던
석등은 아직
옛 자취를 밝히고 있다.

2009. 4. 17



그녀들의 이야기

- 일본 근대 서양화전



부인상, 데라우치 만지로, 1941년, 116.7×91cm

_ 그림 보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하다. 작품 앞에 오롯이 서서 나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부자가 된다. 작년 겨울, 친구들과 함께 베르메르 전과 피카소 전을 보러 일본에 갔다가 빌헬름 함메르쇼이의 그림까지 덤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본 작가의 그림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지 않다. 분명 어느 미술관에서건 나와 마주 했을 텐데 말이다. 내 무심함을 뒤늦게라도 채워주려는 듯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본 근대 서양화전'이 열리고 있다.

_ 이번 전시는 과거 李王家美術館이 수집한 일본 근대 미술품들을 세 차례에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첫 느낌이 어디선가 본 듯했다. 우리나라 근대 화가들의 그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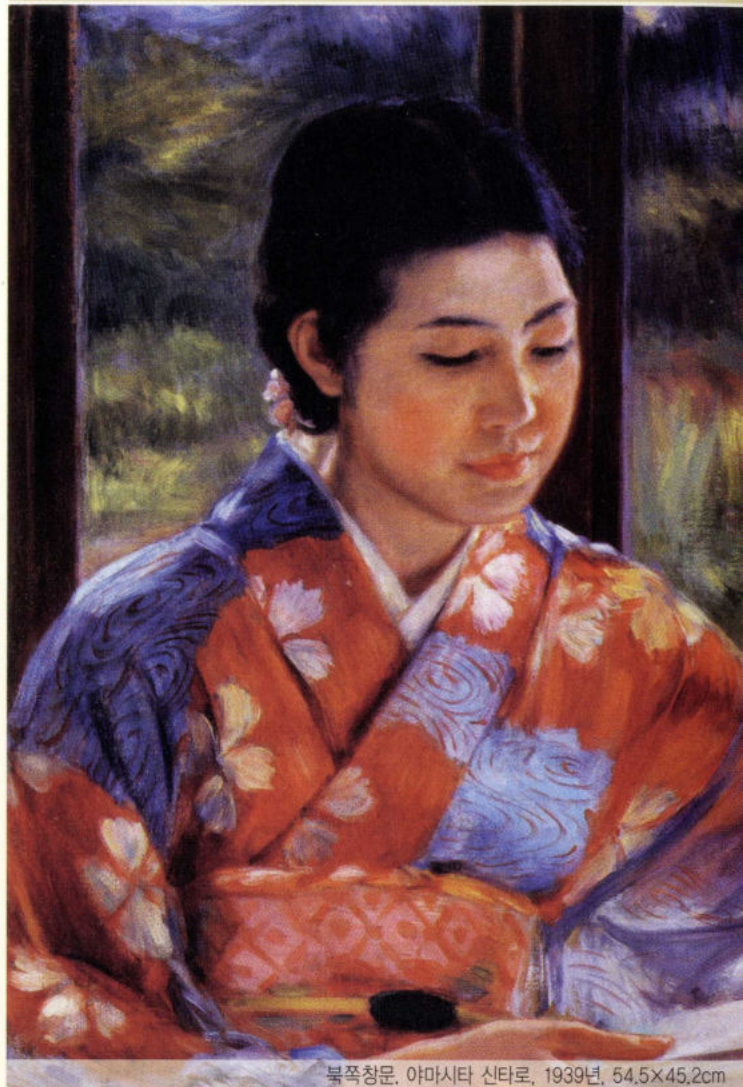
흡사해서 일까? 또한 우리에게 친근한 19세기 유럽 화가들의 그림들이 감상 내내 오버랩 되었다. 이왕가미술관은 영친왕의 주도하에 당시 제국미술원장과 도쿄미술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20세기 초 근대 일본서양화의 모범적인 작품들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영친왕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수집이 거부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_ 인물화와 풍경화 그리고 공예품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인물화는 주로 주체적인 여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풍경화는 기존의 일본 산수화에 날씨와 빛을 중시하는 인상주의적 특징을 담고 있다. 일본 뿐 아니라 히말라야, 한국의 풍경을 담은 그림도 만날 수 있다. 그 중 '백제의 옛

수도'라는 판화 한 점이 눈에 띈다. 정립사지 5층 석탑을 소재로 하였는데 당시 부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여인의 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온아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전해지며, 그 시대의 여인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 나온 그림 속 여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아마도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데라우치 만지로의 '부인상'은 오렌지색의 조끼가 화사하다. 그녀는 등을 돌려 의자에 앉아 있다. 어깨 뒤로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시선을 내게 주지 않고 바닥을 응시한다. 다소곳이 모은 두 손, 꼭 다문 입,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있다. 등에 비추어진 환한 빛줄기 때문일까, 얼굴빛이 더욱 어둡게만 느껴진다. 그녀 앞에는 기타가 놓여 있으며, 뒤로는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감이 널려 있다.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감 사이에서 그녀는 고민에 빠진 듯하다. 나 역시 집안일을 하다 갑자기 그녀처럼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그녀와 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다.

초록과 붉은 색이 빛을 발하는 그림이 있다. '북쪽 창문'이란 야마시타 신타로의 작품이다. 주홍빛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창가에 앉아 독서를 한다. 붓의 터치나 전체적인 색채가 르노와르의 '피아노 치는 소녀'를, 구도에 있어서는 '책 읽는 여인'을 떠올리게 한다. 북송아 빛 볼까지 어쩔 이리도 닮았는지. 아마 이 작가는 르노와르의 작품세계를 롤모델로 삼고 싶었나보다. 이 그림의 색채가 더 진한 탓에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창 너머 푸른 정원과 파란 하늘이 평화롭다. 침략과 전쟁으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듯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마음으로 부터 온다는 말이 떠올랐다.



북쪽창문, 야마시타 신타로, 1939년, 54.5x45.2cm



책 읽는 여인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1874-1876년경
오르세 미술관



피아노 치는 소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1892년
개인소장



이소의 여인, 오쿠보 사쿠지로, 1935년, 97×136.3cm



타히티의 여인들(해변에서)
폴 고크, 1891년
오르세 미술관



부르타뉴 여인들
폴 고크, 1894년
오르세 미술관



채의와 여인의 누드, 이하라 우사부로, 112.1×160.0cm

대체로 여인상은 앉아 독서를 하거나 바느질하는 정적인 모습이 많다. 그러나 '이소의 여인'은 노동하는 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려졌다. 바다를 배경으로 두 여인이 광주리에 생선을 가득 담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어촌의 일이 만만할리 없다. 표정 없는 여인의 얼굴에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온다. 무채색 옷에 붉은 앞치마와 노란 허리띠, 그녀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호사였을 것이다. 고크가 즐겨 그렸던 타히티와 부르타뉴 여인들이 겹쳐진다. 투박한 얼굴, 벌어진 어깨, 두터운 손에서 숨어 있는 고크의 여인들을 찾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전시목록과 도록에 분명 들어 있던 여성누드화를 1·2차 전시에서 볼 수 없었다. 마지막 전시에서 선보여 주려는 것일까? 혹시,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기존 이미지와 맞지 않아 전시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들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3차 전시에서조차 볼 수 없다면 섭섭함이 클 것 같다.

한 점 한 점 그림을 보며 매번 나는 전시장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야만 했다. 붓의 터치나 기법들을 살피기는 좋았지만, 작품이 전하는 바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감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조금만 작품에서 멀어지면 유리의 반사광이 감상을 방해한다. 그뿐 아니라 그림 속에 내가 비춰 보이고, 설치된 조명 역시 눈에 거슬렸다. 특히 빛을 중요하게 다룬 작품들이 많아 이런 환경들이 더욱 속상하기만 했다. 박물관 시설이라 서양화 전시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해결책은 없었을까.

나와 마주한 그녀들은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말없이 속삭여 주었다. 암울한 삶 속의 잿빛이야기였을지라도, 나는 소통의 기쁨으로 가슴이 훈훈해졌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번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 그녀들도 나처럼 행복해지라고... 🐼

영원을 그리며

난 철이 들면서부터 이집트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에 관한 역사소설을 탐독하곤 했다. 가끔 이집트의 공주가 되기도 하고, 파라오를 사랑하는 비운의 여인이 되는 상상을 한 적도 있다. 4월 28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진전시실에서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드디어 꿈을 현실 공간에서 펼쳐볼 수 있다니, 밤잠을 다 설칠 지경이었다. 비엔나미술사박물관이 소장한 230여점의 유물을 네 가지 테마 - 이집트의 신, 신의 아들 파라오, 이집트인들의 삶, 영원으로 가는 길 - 로 나누어 소개했다.

유난히 나의 시선을 끄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왕관을 쓴 하얀 몸의 따오기가 그것이다. 나무로 된 몸통에 양질의 백색 스투코를 바르고, 아테프 왕관을 쓴 머리, 긴 목, 꼬리 깃과 다리는 은으로 주조되었다. 따오기는 신성한 동물로 이집트 전역에서 사육되었고 미라로 만들어져 매장되었으며 토트 숭배에 사용되었다. 마치 긴 여정 끝에 잠시 쉬는 양, 손대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하다. 정교하고 자연스런 묘사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다. 지혜의 신답게 사물을 꿰뚫어 보듯 생동감 있는 눈동자가 압권이다. 그 앞에서 나의 속내를 들킬까 봐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즉위하면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세는 현재 삶의 연장이기에 무덤 제작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덤 덕분에 많은 부장품이 오늘까지 남아 그들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메넴히트 5세의 흉상도 그 하나이다. 파손되긴 했지만 검은 이암에 새겨진 은근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있는 호루스와 호렘헤브 상은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파라오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제 18조 왕인 호렘헤브 왕이 매의 머리를 하고 하늘과 태양의 신으로 추앙되었던 호루스와 동격화 되어있다.



따오기로 표현된 토트, 말기왕조시대 기원전 6세기

아랫부분만 남아있는 서기 이멘메스 상도 호기심이 생긴다. 서기의 전형적인 모습인 책상다리로 대좌에 앉아 있는데 오른손은 옷 위에 왼손은 필통을 들고 있다. 필통에는 봉헌문과 수많은 행사목록이 새겨져있다. 문자에 대한 지식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수되면서 서기가문이 생기기도 했단다. 모든 것을 기록했던 사람들, 기록 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규범과 법으로써 국가를 통치하였다는 증거이다. 체제에 질서를 부여하고 권위를 드러내며 안정된 국가의 기반을 갖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들이 사용했던 파피루스, 연인들의 애절한 연서는 없었을까.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을 전달했으리라. 잠시 엉뚱하지만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일일이 수기로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대한 양의 기록들을 그들은 묵묵히 해냈다. 요즘의 속기사가 부끄러웠을 거다.

미라를 보면서 나의 사후세계를 그려보게 되었다.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창조의 일부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영원불멸의 사후관으로 미라를 제조하였는데 이번에 네 구의 미라가 전시되었다. 네케티세트아루의 미라를 보면 아마포로 싼 미라 위에 구슬망을 덮고 그 위에 날개달린 스카라베를 부착하였다. 관 위에 시신의 생전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얼굴을 그려놓고 채색까지 한 것을 보면 망자에 대한 지극한



네케티세트아루의 내관, 말기왕조 시대, 제25왕조 기원전 755-664년



서기 이멘메스 상의 아랫부분, 신왕국시대, 제19왕조 람세스 2세 통치기 기원전 1304-1237년, 멤피스



예의와 진지함이 느껴진다. 무덤에 같이 매장된 자그마한 샵티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장품 목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언젠가 본 <굿바이>라는 영화에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유족의 말이 나온다. 마지막 모습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탓이 아닐까. 그 가족의 마음으로 사람들은 미라를 제작했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고,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시대에도 장인은 있었다.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입장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환생후의 삶을 기원했던 민족이기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도 있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충성. 그러한 백성을 이끌고 가야하는 신의 존재, 파라오는 절대고독 속에 내세를 준비했으리라. 각 민족의 문화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비슷하다고 본다. 그 시대 그 땅에서도 행복을 추구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현재의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한다.

계절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의 소낙비가 내리던 날, 전시실을 나서며 자기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유물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기억에 남는다. 투탕카멘의 황금마스크까지 욕심을 낸다면 지나친 것이지만, 가장 왕성했던 람세스2세 때의 유물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다. 또한 아몬신을 섬기다가 아톤신으로 넘어가는 문화적 대 격변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영원히 나의 이상형으로 남을 람세스와 주고 받았으면 좋았을 파피루스 연서. 오늘은 람세스에게 편지를 써보아야겠다. 🐼

엄친딸을 기다리며

_ 박물관은 텅 비거나 왁자지껄하다. 어느 편이건 나는 조금 슬프다. 이리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는데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한다는 건 쓸쓸한 슬픔이다. 한껏 치장을 하고 나섰다가 무참히 바람 맞은 기분이다. 넘치는 인파가 박물관을 휩쓸고 다니는 걸 보는 마음 또한 편치 않다. 저리 사람이 많으니 얼마나 주마간산으로 눈을 휘두르고 갔을까? 누구의 눈길도 사로잡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이다.

_ 사람들 뇌리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직 경복궁에 있다. 용산 이전을 용케 아는 사람도 행차는 쉬이 하지 않는다. 바쁘기도 하고 언제든 시간만 나면 할 수 있으니 미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멀리 바다 건너 남의 나라 박물관에는 한국 사람들이 넘쳐난다. 루브르 박물관 광장을 가득 메운 대학생 무리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술대학 학생들도 아닌 일반 배낭 여행객들이라고 한다. 그냥 한번 둘러보려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까지 대동하고 체계적으로 관람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리 문화 지향적인 대학생들이 귀국만 하면 다 어디로 숨는 것일까?

_ 아주 발길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수학여행 시즌과 입시가 끝난 초겨울, 그리고 수업일수만 채우면 되는 2월에는 이촌역 에스컬레이터에 과부하가 걸릴 만큼 박물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평소에는 너무 넓어서 좀 황량하다는 생각이 드는 하늘마당인데 이때는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전시장 안은 북새통이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경이 새겨진 원통을 돌리듯 전시실을 몸으로 휩쓸고 돌아다닌다. 일괄적으로 나누어준 설문지를 들고 다니는 학생도 성의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냥 숙제인 것이다. 마음이 없는 筆寫는 模寫보다 못하다. 자세히 그려 오라고 했으면 한동안 집중해서 관찰은 했을 테니까. 그들의 뇌리에 박물관은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박물관 방문객에게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없는 것일까? 참 재미있는 곳이라는 기억이 다음 발길을 재촉하는 세심한 안내 말이다.

가끔 느닷없는 인파에 의아해질 때도 있다.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기획전시 덕분이다. 단순한 일상을 가로질러 잠시 떠나는 여행처럼 기획전은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가슴 속의 상쾌함만 따진다면 여행만한 것이 없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야말로 미아가 되고 만다.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화려한 쇼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다. 정말 소중한 것은 상설 전시실인데, 눈길도 주지 않는다. 보물은 치장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시선만 있으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닌가. 우리 보물이 뒷전으로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위 말하는 ‘엄·친·딸’도 있기는 하다. 지난 여름 학교 선발로 처음 유럽여행을 하게 된 친구의 딸 이야기이다. 우수 외국 박물관을 돌면서 뭔가 차례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다. 자신이 너무 우리 문화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단다. 귀국하자마자 여독이 다 풀리지도 않은 채 우리 것을 보아야 한다고 다시 짐을 꾸렸다. 그리고 며칠간 여러 박물관을 기웃거리더니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경주로 향했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유적지를 순례하고 남산에 올라서는 보물창고를 지적에 두고 멀리 돌아다녔다고 자책하더라.

우리는 문화적인 민족인가? 문화란 무엇일까? 어디에 문화가 있을까? 박물관 유리 진열장 속에 전시된 유물이 많으면 문화적인 나라일까? 사람들이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줄 알아야 비로소 문화민족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를 많이 접해야 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새롭다는 이유로 눈도장 찍듯 훑고 지나가는 것 보다는 쉽고 익숙한 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 욕심 부리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그 문화가 생성된 배경을 유추하다보면 좀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갈고 닦은 뒤에야 문화적인 시선이 생성된다.

엄친딸을 기다리다 인내심이 바닥나는 건 아닐지. 갈 길은 먼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 조바심이 난다. 무관심이 가장 지독한 슬픔이라고 중얼거리며 오늘도 텅 빈 하늘마당을 걸어들어 간다. 혼자 걷는 그림자가 외롭다. 🐼

불가근 불가원 不可近 不可遠

_ 박물관에서 연락이 왔다. 특설강좌를 듣는 수강생의 부여지역 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해달라고…… 나의 기억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일기장을 꺼내어 나의 특설강좌 수강시절 첫 답사 단상들을 읽어 보았다. 그동안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답사'라는 조금은 전문적이고 근사한 타이틀 때문이었을까? 유난히 설레고 기대도 많았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글을 읽고 있는 내 입가에 미소가 번져왔다. 같은 지역의 답사를 예전에는 수강생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하게 되었다.易地思之란 말이 떠올랐다

_ 답사일, 아침에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사방으로 봄기운이 물려드는 시기인 만큼 예쁜 꽃들도 보고 봄기운도 마음껏 느껴보리라는 속마음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치스런 생각도 그것으로 끝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수강생 인원점검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의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다.

_ 언제나 '첫'이라는 단어는 설렘을 동반하나보다. 그만큼 회원들 나름대로 첫 답사에 대해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탓일까? 답사지를 이동할 때마다 질문과 요구사항과 불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5년 전에 내가 했던 것과 유사한 언행들을 오늘은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 있었다. 그때는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에게 했던 말들이 인솔자 입장이 되어 들어보니 심지어 어떤 내용은 상처가 되기도 하였다. 같은 말을 하여도 왜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지 못했을까? 지난날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_ 답사지에서 뚜렷이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원봉사자이지만 막상 해보니 매사가 신경 쓸 일이었다. 답사를 진행하면서도 머릿속으론 어느새 이동할 장소에 대해 생각해야 했고, 수강생의 끊임없는 질문에도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야 했다. 그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배려하는 직원들과 자원봉

사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었다는 생각에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자원봉사를 하면 남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본인이 얻고 배우는 것이 더 많다더니 그 말이 맞나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성심성의껏 노력하며 수강생들을 대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과 무언의 교감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 예전에 한 회원이 나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물으면서 들려준 일화가 있다. 자신이 10여 년 전 뉴욕에 있는 박물관에 갔을 때의 경험담이란다. 봉사자에게 한국어로 된 안내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단다. 그 봉사자의 말이 지금은 자료가 없으니 머무를 숙소의 주소를 가르쳐주면 그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3일 후에 그 자료가 도착한 걸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단다. 그 회원이 전해준 자원 봉사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 정림사지, 왕흥사지, 능산리고분을 돌아보며 세월의 향기에 젖어보는가 하였더니 어느새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또 다시 수강생들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이렇게 봉사자로 참여한 나의 봄 하루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었다. 아울러 '不可近 不可遠'이라는 말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동료 봉사자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



朝鮮 後期 分帖式 大縮尺 全國地圖의 製作과 『朝鮮圖』

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머리말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朝鮮圖』(청구기호 : 韓14-7)는 18세기 후반 조선 지도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식의 지도이다. 곧 전국 단위의 經線과 緯線 조직 위에 크고 상세한 전국지도를 그리고 이를 여러 책에 나누어 수록하는 이른바 分帖式 大縮尺 全國地圖인 것이다. 『조선도』는 18세기 후반 처음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의 寫本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선도』와 『東輿圖』(일본 츠클바대학 소장)의 두 사례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18世紀 후반 지도 제작의 새로운 경향과 『朝鮮圖』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는 18세기 후반 본격적인 발전을 이룩한 方眼式 郡縣地圖의 영향 하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도』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해명하는 데 결정적인 지도이다. 또한 『조선도』가 채용한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라는 형식은 전통 지도학의 결정판으로 일컬어지는 김정호의 『大東輿地圖』와 같은 것이어서, 『조선도』나 『동여도』의 등장으로 19세기 『대동여지도』류의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의 발전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조선도』는 18세기 후반 방안식 대축척 군현지도류의 제작 성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대축척 군현지도류의 발전은 1770년 신경준의 『列邑圖』 8권의 제작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군현 단위의 지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진전은 이제까지 한 폭으로 제작되던 전국지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식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 하였다.

『열읍도』의 寫本으로 여겨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東國地圖 三』(승계古2702-22)이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朝鮮地圖』(奎16030),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수정작업을 거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海東輿地圖』(古朝2107-36) 등의 군현지도집에 수록된 개별 군현지도들은 20리 방안에 기초한 동일한 경위선 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위선 조직은 군현지도뿐만 아니라 방안식 대축척 전국지도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東輿』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김정호가 1834년 제작한 『靑邱圖』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전국 단위의 경위선 조직을 채용한 것은 18세기 후반의 지도 제작 경향 가운데 가장 새로우면서 동시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후 지도 제작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큰 것이었다. 요컨대 대축척의 방안식 전국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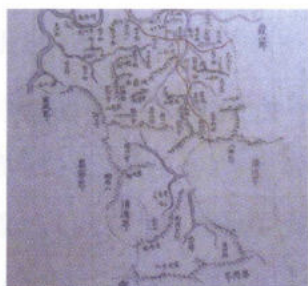
것이였다. 전국 단위의 경위선 체계가 구축되고 이러한 체계 위에 상세한 개별 군현지도가 제작된 이상, 이러한 지도들을 전국 단위로 종합하여 대축척 전국지도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상기의 『東國地圖』나 이를 개선한 수정본 계열의 지도, 해주 신본 등의 지도는 대개가 높이 2.5~3m 정도의 대형 족자로 제작되어 열람이 용이하지 않았다. 궁궐이나 관청 등의 큰 건물이 아니고서는 지도를 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도들의 축척은 10리를 주척 1촌으로 표현하는 방안식 군현지도에 비해 그리 큰 지도가 아니었다. 높이가 2.7m에 이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東國大地圖』(덕4396)도 그 축척은 1/48만 정도로 『조선지도』의 1/216,000에 비해 절반이 못 되는 크기이다. 지도의 상세함이 새로 등장한 방안식 군현지도에 미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러한 사정은 지도의 세밀한 수정작업이 기존의 대형 족자 전국지도보다는 방안식 군현지도로 옮겨져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형지도류들의 수정작업이 산견되지만 상세 지도의 주도권은 대축척 군현지도 쪽으로 옮겨 간 점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가 바로 『海東輿地圖』이다. 『해동여지도』는 『朝鮮地圖』와 경위선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같은 기반 위에 있으며 내용도 대동소이하지만, 바로 미세한 차이점들이 상당수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다름 아니라 조선 지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동국지도 3(대구)(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지도 (대구)(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



해동여지도(대구·현풍)(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도(대구 지역)



동여(대구 지역)



청구도(대구 지역)(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

그러나 이제까지의 지도 가운데 가장 큰 축척으로 제작된 군현지도류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군현 단위로 제작되는 지도의 태생적 한계였다. 즉 전국의 지형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이였다. 개별 군현 단위로 제작되는 군현지도의 특성상 개별 군현의 지리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군현과 군현의 연결이나 전국 단위의 지리정보 파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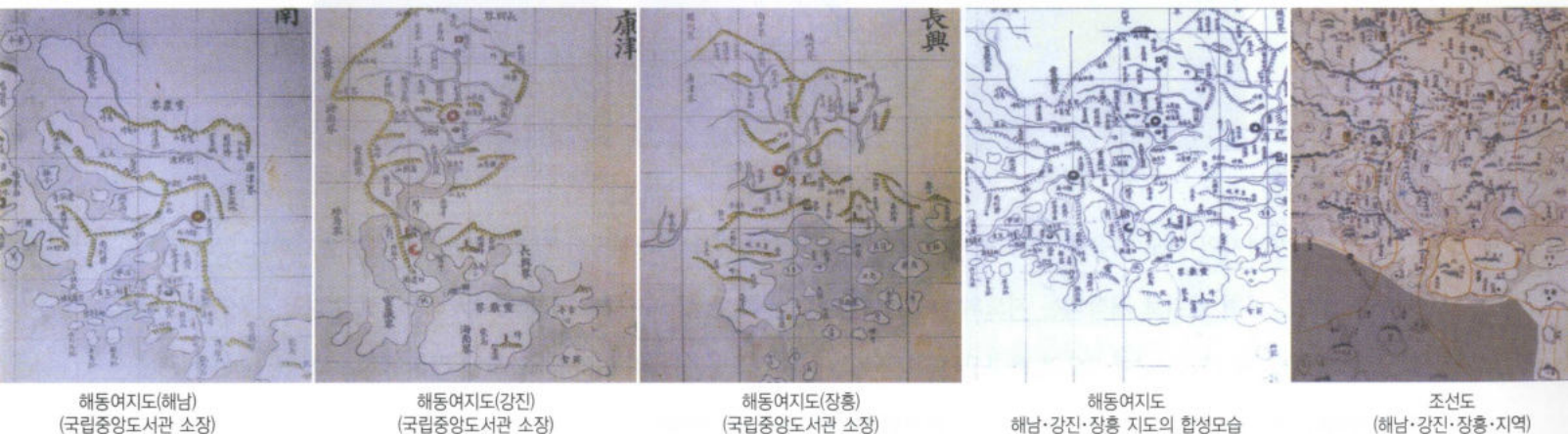
『朝鮮圖』의 제작과 方眼式 郡縣地圖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8세기 후반 조선 지도학은 기존 『東國地圖』류의 전국지도를 개선하는 대신, 보다 상세한 방안식 군현지도류의 합성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전국지도를 모색한 것이었다. 이에 『조선지도』 단계에서 확정된 전국 단위의 경위선 체계 위에 해동여지도 단계에까지 이른 지리정보의 상세함으로, 기존 전국지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지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0리를 주척 1촌으로 표현하면 축척은 1/216,000이 되어 『동국지도』류의 전국지도에 비해 2배 이상의 크기가 되므로 족자 형식의 지도는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안은 전국지도를 여러 권의 책에 나누어 담는 이른바 분첩식 지도였다. 전국을 일정한 층수로 나누고 매 층에 해당하는 지도를 각 권의 책에 담는 것이었다. 각 권의 책을 제작하는 형식도 『조선도』와 같이 일반적인 책자의 형식이 모색되기도 하였고, 일본 츠클바대학 소장 『동여도』와 같이 절첩식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조선도』와 『동여도』는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의 이른 사례들로 현존 지도중 가장 제작 시기가 빠른 것들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18세기 후반 유행한 방안식 대축척 군현지도류와 『조선도』의 유사성은 최초의 대축척 전국지도가 방안식 군현지도의 합성을 통해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에 상당한 설득력을 실어준다. 예컨대 『조선도』에 그려진 어느 지역을 견본으로 삼아 『해동여지도』와 비교하더라도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임의로 전라도 해남, 강진, 장흥 지역을 선택하여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비교는 최초의 대축척 전국지도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해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아래 『해동여지도』의 해남·강진·장흥지도를 제시하고 이 세 지역을 임의로 합성한 지도를 제시했다. 이 지도의 내용을 『조선도』의 해당 지역과 비교해 보면 산줄기와 물줄기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충청도 泰安의 서북쪽 바다에 기재된 十二防圖에 대한 표현이나 경기도 南陽 서남쪽 바다에 기재된 일련의 섬(大阜·延興·昇荒·召忽島)에 대한 표현이 『해동여지도』와 『조선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조선지도』와는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조선도』가 『조선지도』에 비해 『해동여지도』에 좀 더 가까운 지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도』와 『동여도』 등의 초기 대축척 전국지도가 제작될 때 저본으로 삼았던 지도가 『해동여지도』 계열의 지도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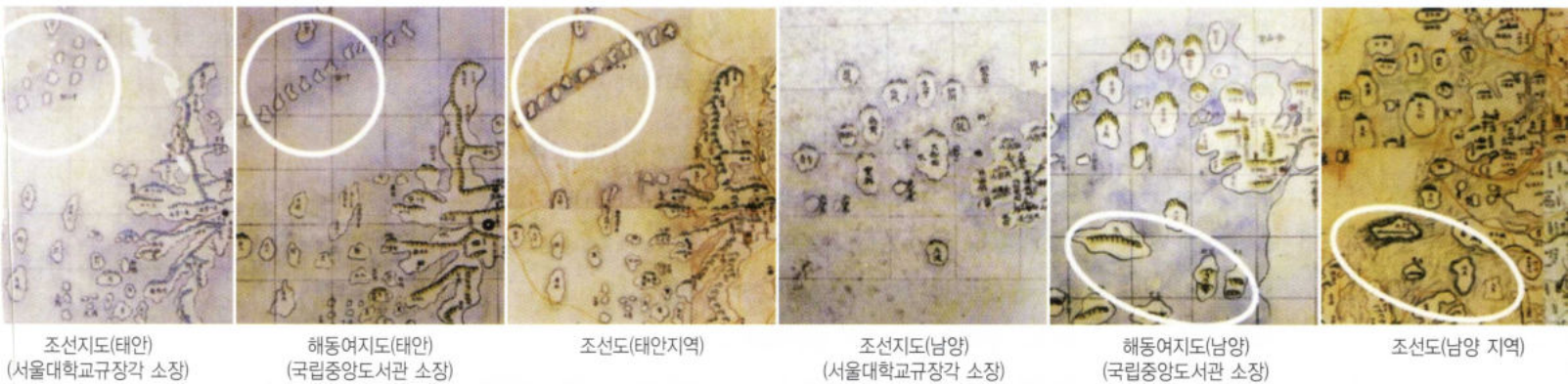
해동여지도(해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동여지도(강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동여지도(장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동여지도
해남·강진·장흥 지도의 합성모습

조선도
(해남·강진·장흥·지역)



한편 『조선도』에는 『해동여지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을 수정 및 보완한 흔적도 반영되어 있다. 즉 개별 군현지도에서 각각 다른 정보를 싣고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지도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정보의 보완 작업이 일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맺음말

분첩식의 대축척 전국지도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보다 큰 축척으로 넓은 지면에 상세하게 지리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국 단위의 지리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전국 단위로 산줄기와 물줄기 등의 지형과 도로망을 파악할 수 있고, 군현간의 경계와 越境地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개개 군현단위의 정확성을 전국지도로 확장시키는 의미를 띠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도 발전의 도상에서 다양한 수정과 실험 작업이 진행되었다. 예컨대 전국지도의 기본 뼈대가 되는 전국 단위의 경위선 체계 자체에 대한 수정작업도 시도되었던 것이다. 『조선도』와 『동여도』는 바로 이러한 작업의 산물로 두드러진 것들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지도 제작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였으며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조선도』나 『동여도』와 같은 전국지도들은 18세기 말 방안식 대축척 군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초기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의 영향을 받은 지도로 추정된다. 즉 최초의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는 『해동여지도』의 경위선 조직을 기반으로 한 지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과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경위선 조직 위에 제작된 『동여도』나 『조선도』는 최초의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로부터의 또 다른 변형으로 보인다.

최초의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에는 일정한 한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산줄기와 물줄기의 위계와 크기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었다. 군현지도에 수록된 지리정보를 충실하게 수록하였지만 산줄기와 물줄기 등 자연지형의 구체적인 크기를 전국 단위로 체계화하여 표현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군현지도의 한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조선도』와 『동여도』에는 이러한 한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참고문헌

輿地圖書 | 大東地志

- 金基赫,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 「東國地圖 三」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9(1).
- 楊普景, 1995,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16.
- 楊普景, 1997, "日本に所藏される「大東輿地圖」の書誌學的檢討", 李朝末期「大東輿地圖」にあらわれる自然觀・環境觀の研究
- 楊普景, 1999, "일본 大阪府立圖書館 소장 《朝鮮圖》의 고찰", 書誌學研究 17.
- 吳尙學, 1994,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관한 연구", 地理學論叢 24.
- 吳尙學, 2007, "「朝鮮圖」에 표현된 分野說 考察", 朝鮮圖, 국립중앙박물관 조사 국외역사자료총서 1, 해설집, 19-27.
- 李起鳳, 2003, "「東輿圖」 해설", 東輿圖, 서울대학교규장각
- 李起鳳, 2005, "「朝鮮地圖」(奎16030) 解說", 朝鮮地圖, 서울대학교규장각
- 蔣尙勳, 2007a, "朝鮮後期 大縮尺 朝鮮全圖의 發達과 「東輿」", 문화역사지리 19(1).
- 蔣尙勳, 2007b, "조선후기 대축척 전국지도의 축척 시론", 대한지리학회 2007년 전국지리학회 발표요지, 118-123.

심사평

- 일본 오사가 부립 나가노시마 도서관 소장 「조선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방안식 군현 지도류가 「조선도」에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과, 18세기 후반 방안식 군현 지도가 최초의 분첩식 전국지도로 전환하는 과정을 밝히고 있음.
- 연구의 대상이 된 「조선도」는 18세기 후반 처음 등장한 초기 분첩식 대축척 지도사본으로 이러한 사본은 현재까지 「조선도」와 「동여도」의 두 사례만이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큰 자료로 판단 됨.
- 해외 소장 자료의 발굴이라는 점과 「조선도」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를 볼 때 조선후기 지도 제작사 연구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연구로 판단됨.
- 최근의 조선후기 지도사 연구에 대한 연구성과까지 폭넓게 활용하고 있음.

심사위원 신병주

차분한 논리전개가 돋보이는 글이다. 꼼꼼한 각주 처리 내용도 평가받을 만하다.

심사위원 권오영



미래를 담은 그릇,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국립중앙박물관회는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사회에 나눔의 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기부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기증·기부자의 밤'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기증·기부자의 뜻에 보답하기 위한 '명예의 전당'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주)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의 문화재 200점 기증, 호림박물관 윤장섭 이사장 1억원 기부 및 SK에너지 박물관 후원협약체결식 등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박물관 문화활동을 대내외에 홍보하며, 소액 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박물관회의 Young Friends of the Museum은 100주년 상징물 건립을 목표로 후원금 마련을 위한 문화행사를 추진하며, 앞으로 문화소외계층과 청소년, 외국인 관람객 등 다양한 계층이 박물관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후원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문화와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기증·기부문화가 정착되고, 또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명예의 전당 현판식



(주)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 문화재 200점 기증



호림박물관 윤장섭 이사장 후원금 1억원 기부



SK에너지 박물관 후원협약 체결 및 1억원 후원

●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8대 사업

기증·기부운동(연중)	100주년 기념 특별전(9.29~11.3)	100주년 기념 상징물 건립(11.1)	세계 주요 박물관장 국제포럼(11.3)
국제학술대회(5.22~25)	한국 박물관 대축전(10.10~10.18)	100주년 기념식(11.2)	한국 박물관 100년사 발간(12.30)



전통 염료 식물원

후정 옆 고궁의 기와 담을 따라 걸어보자.
아취문을 지나 오솔길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풀들이 가득 피어있다.
쪽, 솔나물, 조뱅이, 소리쟁이, 꿀풀, 닭장 주변에 많다하여 닭의장풀... 그 이름만 들어도 정겹다.
멀리 또 하나의 門을 보며 고궁의 또락을 거니는 그 순간, 나는 공주가 된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사회교육·자원봉사·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

理 事 | 崔光植 金寧慈 金信韓 金正泰
朴仙卿 成弼鎬 申聖秀 申硯均
申憲澈 尹碩敏 尹在倫 鄭明勳
池健吉 洪政旭

監 事 | 金義炯 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수정회원으로 나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원, 은관회원 삼천만원, 청자회원 일천만원, 백자회원 오백만원, 수정회원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千 信 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 昌 根	
하나금융지주	金 宗 烈
尹 章 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 에너지	申 憲 澈

■금관회원

尹 碩 敏	SBS 홀딩스 부회장
俞 相 玉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 炳 燁
(주)한 섬	鄭 在 鳳
(주)STX	姜 德 壽
朴 容 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 明 勳	서울시향 고문

■은관회원

柳 昌 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 鍾 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 弼 鎬	광성기업 대표
徐 載 亮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청자회원

申 硯 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 仙 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 永 采	사)한길봉사의 이사장
金 永 珉	김&장법률사무소
玄 明 官	전 삼성물산 회장
柳 芳 熙	(주)풍산주택 사장
申 聖 秀	고려산업(주) 회장
權 俊 一 · 具 在 善	Actium 부회장
南 秀 淨	(주)썬앳푸드 대표
李 仁 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 榮 秀	변 호 사
胡 鍾 一	호성흥업회장

趙 炳 舜
愼 昌 宰
李 雲 卿
金 英 惠
李 美 淑
鄭 在 昊
朴 海 春
李 起 雄
辛 永 茂
辛 炳 讚
朴 載 蓮
李 鈴 子
許 榕 秀
金 宗 學
都 炯 泰
한국도로공사

李 宇 鉉
玄 智 皓
金 芝 延
金 南 延
최 철 원
洪 政 旭
李 明 姬
金 信 韓
金 寧 慈
金 正 宙
金 性 完
梁 汰 會
尹 在 倫
丁 恩 美
趙 顯 相
鄭 義 宣
崔 惠 玉
洪 錫 肇
鄭 溶 鎭
洪 誠 杓
崔 世 勳
金 承 謙
朴 世 昌
崔 杜 準

■백자회원

李 京 姬	수필가
李 興 杓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金 惠 蓮	대학 강사
崔 科 南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李 健 茂	문화재청장
韓 載 京	
柳 憲 辰	
高 錫 銘	
李 殷 子	
鄭 珮 熹	
李 芝 衡	
金 京 姬	
韓 惠 舟	
李 教 祥	
李 胤 基	
朴 榮 圭	(주)서울옥션
柳 英 芝	
俞 承 熹	
高 基 瑛	
池 健 吉	
朴 善 正	
梁 洪 碩	
吳 勝 敏	
朴 禎 原	

성암고서박물관장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제일화재 이사장
삼표산업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열화당 대표
법무법인 세종 대표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성곡미술관 이사

GS홀딩스 상무
서양화가
갤러리 현대 대표
柳 徹 浩
동양제철화학 부사장
(주)화승 부회장
컨셉바이동훈 대표
동훈디앤아이 대표
M&M(주) 사장
국회의원
경운박물관장
대성산업 전무
재)예울 이사장
넥스홀딩스 대표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주)비상교육
서울대학교 교수
(주)종로대학편입사 대표이사
효성그룹 전무
기아자동차 사장

변호사
신세계 부회장
코스테크 부회장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주)서릉 대표
금호아시아나 상무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수필가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대학 강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청장

코한 인터내셔널
(주)크린텍 회장

변호사
(주)Peeona 조경 대표
화정박물관 관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그랜드힐튼호텔 대표
용인대학교 교수

유금박물관 기획실장
코리아나화장박물관 부관장
(주)금비 대표
동아대학교 교수
DLMI 상무
대신증권 부사장
동일산업 상무
두산인프라코어 전무

책을 만들면서..

5월 22일 그냥 한방에 끊었다.
40여년이 아쉽지만... (水)

치열함이 허망했던 그 늦은 봄날이 갔다.
초록잎 흔드는 뜨거운 바람 속에서
새로운 결을 찾아낼 수 있을까. (정)

질어 가는 초록의 향연
그 안의 우리들
자연을 닮아 봄직도 한데... (愛)

뒤뜰에 모란이 흐드러진 게 어제 같은데
흔적도 없이 잎만 무성하다.
자주 망각하지만
모든 사건의 일회성이 놀랍기만하다. (河)

오뉴월 감기는 뺏도 안걸린다는데...
지독하게 앓고 나니 편집이 끝났다.
미안한 마음 반,
반가운 마음 반...^^* (리)

선사시대 돌을 유심히 보다
문득 金石之交라는 말이 떠오른다. (瑚璉)

발 행 일 | 2009년 6월 20일

발 행 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 행 인 | 유창중

기 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진수옥·하영남

진 행 | 강신애

발 행 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전 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 본 회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 135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